

운영위원회 회의록

□ 일 시 : 2021년 11월 17일(수) 오전 11:00 - 12:00

□ 장 소 : 복지관 3층 달콤한 방

□ 참석자 : 8명

○ 참 석 : 8명

김봉구 위원, 이정순 위원, 임규옥 위원, 정병오 위원, 최성자 위원, 홍인실 위원, 김영미 위원(관장), 이영란 위원

○ 불 참 석 : 2명

이준석 위원, 이현덕 위원

○ 직 원 : 1명

김영례 부장

□ 개 회 선 언

- 11시 00분 운영위원회 총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시작하다. 정병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였고, 김영미관장이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6개월만에 대면회의를 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전하며 인사를 드리다.

□ 보 고 사 항

- 전차 회의록보고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채택하다.
-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(안) 보고
- 김영례부장: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(안)을 보고하다.
- 정병오위원장: 데이케어센터 사업비 감소 사유를 묻다.

- 이영란과장: 데이케어센터 정원이 21명인데, 올해 코로나 2차 백신접종까지 마무리 하면서 총 13명이 요양원 입소를 하게 되었고 공석이 남아 수입이 감소되었다.
- 정병오위원장: 지정기탁 수시지원사업은 사례관리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, 노인맞춤 돌봄사업 반환금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.
- 김영례부장: 지정기탁 수시지원사업의 경우 사례관리항목에 원래 포함된 것이고, 이번에 후원이 추가되어 증액되었다. 노인맞춤돌봄사업 반환금은 생활지원사 시간외 수당 미지급분이다. 폭염 및 한파 관련 추가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항목이다.
- 김영미관장: 이번 3차 추경은 예산이 추가되어 증액이 이루어진 셈이다. 10여년 넘게 진행된 KT&G김장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에 1천만원 후원금 요청을 했다가 2천만원을 받게 되었다.
- 정병오위원장: 3차 추가경정 예산은 계수 조정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다.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다.

- 2022년 사업(안) · 예산(안)

- 김영례부장: 2022년 사업(안) · 예산(안)을 보고하다.
- 김영미관장: 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세밀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. 올해 서울시에서 지역밀착형 시범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였고, 내년도에는 더 증액이 될 계획이다. 이에 따라 본 기관에서도 지역에서 나가서 하는 활동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. 상담, 프로그램 진행을 지역에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, 동주민센터 행복나눔터나 지역내 연계기관 등의 공간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.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의 관계를 더 연결하고, 주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.
- 정병오위원장: 서울시장이 보궐로 바뀌면서 복지관에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하다.
- 김영미관장: 복지관의 사업비 지원이 거의 없고, 인건비도 실호봉제 반영이 되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. 복지관 예산은 크게 삭감되지 않아서 시민단체 영역보다는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.
- 정병오위원장: 복지관 실천지침에 보면은 '사회복지사'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타 직종을 배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느껴지고, '성찰하고 배우겠습니다'라는 표현도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고 여겨진다.
- 김영미관장: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. 사회복지사라는 표현보다는 직원이 라는 표현이 더 좋겠다. 주민 입장에서 더 이해가 가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.
- 정병오위원장: 지역밀착형에서 거점공간이 이미 있는 것인지, 없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 대해

궁금하다.

- 김영례부장: 현재 주1회 정도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거점공간(행복터, 놀이터)는 있지만,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.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.
- 정병오위원장: 데이케어센터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궁금하다.
- 이영란과장: 어르신들이 노화가 진행되다 보니 신체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. 올해까지는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지만, 코로나 지속으로 그 프로그램의 유의미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. 이에 따라 올해 말에 보호자와 어르신의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특화사업을 개발하고자 한다.
- 정병오위원장: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이 궁금하다.
- 김영례부장: 혼자 생활이 가능한 수급 어르신 2명을 대상으로 1개소를 운영 중이다.
- 정병오위원장: 컵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.
- 김영례부장: 어르신 소모임으로 컵으로 타악기 프로그램을 하는 소모임이다. '신체활동 + 음악활동'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내년도에 신규 계획 중이다.

- 12월 주요 업무 보고

- 김영례부장: 12월 주요 업무를 보고하다.
- 정병오위원장: 사례관리 이용자라는 표현에서 '관리'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이 된다. 당신이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.
- 김영미관장: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. 본 기관에서는 대상자, 클라이언트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라고 표현한다. 이용자분에게는 사례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, '협의, 동행, 함께'라는 표현들을 사용한다.
- 홍인실위원: 어린이집은 코로나라 이용인원이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오히려 더 늘어났다. 작년 말부터 사랑의샘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월요일 대체식 포장 자원봉사를 했는데, 생각보다 신체적으로 힘이 들었다. 이 일을 2년째 하고 있는 직원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, 진정성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. 다른 운영위원님들도 사랑의샘터 같이가치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.
- 임규옥위원: 복지관 운영위원회 참여 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.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, 예산도 미리 계획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.
- 최성자위원: 오늘 장애인친구들과 나들이를 갈 계획이라 마음이 바빠서 가볍게 인사를 대신한다.
- 김봉구위원: 사회복지를 잘 몰라서 배우려고 왔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. 내년에 지역에 왕진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서 이런 업무에 대해 더 알아야 하는 상황이다.

- 이정순위원: 복지관에 오지 않았으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 줄을 몰랐겠다. 복지관과 학교 관련사업이 3개 있어서 이 회의에 잘 참여했다는 생각이 든다. 중곡초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아서 다문화강사가 별도로 배정되었다. 그래서 지역에서 중곡초로 전학오는 다문화친구들이 상당하다. 1,2학년에는 아무래도 소통이나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. 이 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.
-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다. 코로나 환경에서 열심히 복지관 사업 추진을 하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. 올해 정리를 잘 하고, 내년에는 좀 더 활기찬 마음으로 한해를 맞이하면 바라본다.
- 정병오위원장이 안건 심의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친다.
이상으로 의안 논의를 완료하고 12시 폐회를 선언하다.

<관련 사진>



제4차 운영위원회